

이스라엘, 가자 대신 서안서 전쟁...트럼프 취임 직후 맹폭

정착민 제재 해제에 고무...네타냐후 "이란 축 단호히 대항" 가자지구 불안감속 평화...구호트럭 총 2천400여대 투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은 일단 조건부로 멈췄지만 반대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오히려 포성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인 제재를 해제하자, 이에 힘을 받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서안지구로 눈을 돌려 공격을 강화하는 모습이 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보안군이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서안지구 북부 도시 제단을 공격,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군·경과 안보 기관의 '대테러 작전'이라고 내세웠다.

네타냐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은 "가자, 레바논, 시리아, 예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

라엘식 표현)에 손을 뻗치는 이란의 축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르단강 서안은 국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행정권을 지녔지만,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이스라엘인을 보내 유대인 정착촌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아가 서안지구를 합병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고 있다.

현재 약 70만명의 이스라엘인과 27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20일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인 정착민들의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도 대담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인 제재를 해제하자, 이에 힘을 받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서안지구를 21일 공격했다. 사진은 파괴된 주택. /AP=연합뉴스

지고 있다. 제닌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앞둔 며칠 전부터 곳곳에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20일 오후에는 알푸둔 마을에서 이스라엘 정착민 무리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베

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환영한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서안지구의 정착촌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다만 가자지구에서는 불안 속에서도 일단 평화가 지켜지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휴전 이후 사흘간 2천400대가 넘는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갔다.

휴전 첫날인 19일 630대가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20일 95대, 21일 897대가 각각 구호물자를 실어 날랐다고 한다.

기근 위험신호가 감지되는 가자 북부를 중심으로 음식과 물, 의료용품과 상수도 및 주거지 보수를 위한 물자 등이 전달되고 있다.

파손된 도로로 인해 트럭 이동이 지연되거나 일부 주민들이 구호품 탈취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인 무하나드 하디는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트럭에 올라타 음식 바꾸기를 훔치려 하거나 몇몇 사람들이 물병을 훔치려 하는 수준"이라며 "가자 주민들이 모두에게 충분한 구호품이 제공되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며칠 내로 이런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WHO, 트럼프에 탈퇴 결정 재고 요청

"전세계 보건 악화 우려"...중·빌 게이츠 재단, "지속 지원"

세계보건기구(WH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WHO 탈퇴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2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WHO는 미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HO는 그동안 국제사회와 함께 천연두를 종식했고 소아마비 박멸에 다가섰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이 전 세계 보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대해 이번 결정을 재고하기를 바라며 전 세계 수백만명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미국 정부가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향후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악화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집행위는 국제적인 보건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인 탈퇴에 앞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WHO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WHO의 역할은 악화하지 않고 강화돼야 한다면서 중국은 언제나 그랬듯이 WHO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류를 위한 공동 보건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HO 주요 기부단체 중 하나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의 게이츠 재단도 WHO가 미국인을 포

함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강 위협에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파리기후협약 재탈퇴와 함께 WHO 탈퇴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도 서두부터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말기인 2020년 7월에도 중국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WHO에서 탈퇴했지만, 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21년 1월20일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022-2023 회계연도 WHO 예산 67억달러(약 9255천800억원) 중 13억달러(약 1조8천608억원)를 책임진 최대 기부 국가다. /연합뉴스

튀르키예 스키장 호텔 화재...최소 76명 사망·51명 부상

소방대 1시간후 도착·진압 12시간

침구 묶어 탈출·뛰어내려 숨지기도

2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스키 리조트의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76명으로 늘어났다.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보건 당국은 이날 서북부 볼루주(州) 카르탈카야에 있는 그랜드카르탈 호텔에서 난불로 최소 7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집계된 사망자 수(최소 66명)보다 10명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는 51명으로, 이들 중 1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17명은 치료 후 퇴원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3시30분경 호텔 내 식당에서 발생했다. 압둘아지즈 아이딘 주지사는 12층짜리 호텔 건물 4층에서 시작된 불이 위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며 말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화재 당시 호텔에는 234명이 투숙했



2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서북부 볼루주(州) 카르탈카야에 있는 그랜드카르탈 호텔에서 불이나 최소 76명이 숨졌다. 사진은 화재 진압 모습. /AFP=연합뉴스

으며 희생자 가운데 2명은 탈출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숨졌다.

생존자와 목격자들에 따르면 투숙객들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거나 침구를 묶어 만든 임시 밧줄로 탈출을 시도했다고 한다.

화재 진압에는 12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딘 주지사는 호텔이 시내 중심

부와 먼 곳에 있는 데다 후한까지 겹치면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알리 예를리카야 내무장관은 호텔 뒤편이 비탈진 소방대가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호텔의 방화시설 미진이 사고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 | | | |
|---|--|---|---|---|
| <div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시내 지역</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 <div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지방 지사</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